

PetroChina, Shanghai 증시 상장

기업공개 통해 60억달러 조달 ... 석유 · 가스자원 확보에 사용

중국의 거대 석유기업 Petrochina가 Shanghai 증시에 상장된다.

Petrochina는 8월10일 이사회에서 Shanghai 증시 상장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에 상장돼 있는 Petrochina는 Shanghai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60억달러를 조달해 중국 석유 · 가스 자원 탐사, 대규모 정유소 건설, 송유관 건설, 해외 석유 · 가스자원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식발행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대륙의 증시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상장된 중국기업의 대륙증시 귀환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홍콩에 상장된 China Cosco Holdings가 A주 시장에 돌아왔고 중국건설은행도 돌아올 예정으로 China Shipping Container는 8월10일 15억주의 A주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2007년 Shanghai와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2006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돌았다.

중국 증권당국은 국내증시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해외상장기업의 귀환을 독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13>